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마음이 깨끗한 자의 축복 (마 5: 8) ..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의 축복” (마태복음 5: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비한 사람,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공홀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 공홀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홀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마음이 바로 공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홀하심으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 이해되지 않는 용서를 받아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홀함을 베푸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공홀히 여기는 마음,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공홀한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공홀함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의로운 자, 상대방은 불의한 자라는 마음으로 공홀이 아닌 정죄와 비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공홀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공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공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홀히 여기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살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조건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홀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받고 그 받은 공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성찬식 -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인선 예산 위원회 - 인선/ 예산 위원회 모임이
점심 식사후에 모입니다.
4. 추수 감사예배 - 11월 21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07	11/14	11/21	11/28
대표기도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이화선
헌화성도	이화선	김현옥		
봉사당번	은혜목장	섬김목장	동지목장	살롬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274.00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21 일 (주일)
12 월	성탄축하예배	12 월 19 일 (주일)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금)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동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동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행복을 선택합니다

싫은 것, 힘든 것, 화난 것, 분노한 것을 숨김없이 바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위장병이나 속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참고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내색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속병이나 위장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놓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기도함 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을 쏟아 놓고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 그리고 사명에 대한 감사할 축복들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 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보다 불행을 선택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쪽을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고 있을 때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행복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행복의 말을 해야 하고 행복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되지 않을 것 같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하고 들으면 힘이 나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선택하고 누리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의 말을 선택하고 행복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복의 행동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내가 행복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선택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Edison&Danielle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등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